경인일보

연천군 한탄강 지질공원...주민 주도 관광상품화

오연근 기자 발행일 2021-01-21 제9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 주상절리 베개용암. 2021.1.20 /연천군 제공

연천군, 팸투어 거쳐 DMZ로컬 등
3개 투어 마련... 지속적 소득 창출

연천군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

20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용역보고회를 열고 지역주민 주도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이 되도록 지질공원 관광산업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평가 및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6차례의 팸투어를 거쳐 '연천 DMZ로컬투어', '연천 한탄강 유네스코 투어', '한탄강 웰니스 투어' 등을 마련했다.

한탄강 지질공원의 특색을 보여주는 역사문화와 생태, 지질 등 지역 가치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지역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사업체 14곳과 기존 지질공원 협력업체 34곳 등이 한탄강 지질공원을 테마로 지오 하우스(Geo House), 지오 액티비티(Geo Activity), 지오 푸드(Geo Food), 지오 기념품(Geo Gift) 등의 분야로 나눠 분과별 관광상품을 개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지질공원 관광상품은 국내·외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검증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며 "홍보영상과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